한국고전연구 56집/한국고전연구학회/2022/123~161쪽.
http://dx.doi.org/10.20516/classic.2022.56.123

국문장편소설의 현대적 출판과 대중화 전략

정혜경*

〈차 례〉

1. 머리말
2. 현대적 출판 목록과 양상
3. 현대적 출판 방향과 대중화 전략
4. 맺음말

〈국문초록〉

이 글의 목적은 국문장편소설의 현대적 출판 양상을 총체적으로 살펴 현대적 출판 방향과 대중화 전략을 모색하는 데 있다.

국문장편소설의 현대적 소통력을 높이려면 현대 출판물의 서지 데이터를 집적하여 출판 생태계 전반을 이해하고 소비문화와 유통사적 맥락에서 현대적 출판을 새롭게 구성할 필요가 있다. 이에 지금까지 영인(影印), 교주(校註), 현대역된 국문장편소설의 서지 데이터를 한데 모아 정리하고 이를 토대로 현대적 출판 행로를 추적하였다. 현대적 출판은 1962년 〈임화정연〉을 현대적 수법으로 옮기는 데서 시작하여 1970~1980년대 영인이 중심이 된다. 1990년대 전체 출판량은 전 시기 대비 감소하지만, 2000년대 대중적 출판과 함께 다시 증가한다. 2010년 가장 많은 현대역본(7종)이 출간된 후 매년 1~2종이 현대역된다. 그럼에도 아직 60%에 가까운 작품이 현대어로 옮겨지지 못했으며 〈임화정연〉처럼 새로운 현대역이 필요한 작품도 상당했다.

이어 흥행력이 검증된 작품을 유통사적 맥락에서 발굴하여 우선 번역할 대상을 선정함으로써 텍스트 수용 가능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이본 총량과 매체 수용력을 근거로 우선 번역할 텍스트를 선별하면 현대역본이 부재한 〈화씨충효록〉, 〈유

* 강남대학교 참인재대학

www.kci.go.kr

효공선행록〉, 〈명주기봉〉 등과 새로운 현대역본이 필요한 〈현씨양웅쌍린기〉, 〈하진양문록〉, 〈임화정연〉 등이 그 대상이 된다. 연작 지향성이 강한 장르적 특성을 살려 시리즈물로 출판할 경우 모든 연작이 인기를 끈 〈현씨양웅쌍린기〉 연작과 〈유효공선행록〉 연작이 우선순위를 차지한다.

또한, 국문장편소설의 미감을 현대 독자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콘텐츠 이용 형태와 장르적 속성을 고려한 출판 형태와 방향을 탐색하였다. 축약본과 오디오북으로 출판 형태를 다양화하고 구독형 플랫폼으로 이용 경로를 확장하는 것이다. 대중화는 매체와 플랫폼의 전환만으로 불충분하기에 대중적 확산과 고전 브랜딩 전략을 추가로 제안하였다. 이에 대한 방안으로 교육성과 공유, 큐레이션 서비스, 전문 번역가와 창작자 육성, 고전 읽기와 쓰기의 다양한 인력 확보, 그리고 학회의 역할 변화 등이 있다. 이러한 실천이 더해질 때 국문장편소설을 대중의 곁으로 더 가까이 돌려보낼 수 있을 것이다.

주제어 고전 대중화, 국문장편소설, 출판, 현대역, 축약본, 오디오북, 브랜딩, 큐레이션

1. 머리말

17세기에 출현한 국문장편소설은 인간과 삶의 총체를 담은 문학 양식으로 세계에서 유래를 찾기 힘든 서사 규모를 자랑한다. 독자와 상호소통하며 거대한 스토리 월드를 구축했던 국문장편소설은 19세기 초반까지 널리 읽히다가 향유 패러다임의 전환으로 점차 장르적 소명을 다하고 쇠퇴한다. 고전소설이 활발히 유통되던 활판 인쇄시장에서도 〈하진양문록〉을 위시한 몇 작품만이 선택적으로 활자화되었을 뿐 대부분은 출판 기회조차 얻지 못했다.[1] 그렇게 전통적 출판시장에서 설 자리를 잃고 독자의 시선에서 멀어진 국문장편소설은 오늘날 그 어떤 문학 양식보다 낯선 존재가 된다.

1) 정혜경, 「국문장편소설의 유통 지형과 서지학적 과제-판본별 서지 데이터를 중심으로」, 『우리어문연구』 70, 우리어문학회, 2021, 117~156쪽.

www.kci.go.kr

국문장편소설이 현대 독자에게 적극적으로 다가선 것은 비교적 최근 일이다. 고전의 대중화 물결을 타고 현대인의 감각에 맞게 국문장편소설을 현대어로 다시 쓰면서부터이다. 그러나 국문장편소설을 아는 사람은 여전히 많지 않다. 고전을 현대어로 옮기고 이를 현대 독자와 연결하는 작업을 게을리할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 글 역시 국문장편소설을 대중에게 돌려보내기 위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고전문학의 현대역 연구는 "지금 우리 시대에 고전을 어떻게 번역할 것인가"[2]에 관한 고민의 연속이었다. '고전을 현재의 언어로 바꾸는 번역의 질이 소통의 성패를 결정하기'[3] 때문이다. 좋은 번역은 대상 텍스트에 관한 면밀한 연구에 기초한다. 소통은 단순히 고어를 현대어로 치환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작품에 사용된 언어가 내포하는 문화적, 이념적, 심미적 특수성까지 번역될 때[4] 가능한 터이다. 그리고 번역의 질과 텍스트 수용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출간된 현대역본에 대한 검토와 현대역을 위한 방법론적 탐색이 필요하다. 34종의 장편가문소설을 대상으로 그동안 출간된 현대역본의 양상과 문제를 살펴 현대역의 방향을 제시한 김문희의 연구와[5] 어휘, 문체, 특징적 서술 측면에서 현대역의 실제와 방법을 다룬 임치균의 연구는 그런 점에서 의미가 크다.[6]

그런데 국문장편소설의 대중적 확산을 꾀하려면 현대역의 질적 측면을

2) 김풍기, 「시간 극복으로서의 번역과 공동체 문화의 계승-김광순 소장 필사본 고소설 100선 출간의 의미」, 『국학연구론총』 27, 택민국학연구원, 2021, 33~53쪽.

3) 임치균, 「번역의 관점으로 본 한글 고전소설 현대어화의 실제- 낙선재본 고전소설을 중심으로」, 『돈암어문학』 24, 돈암어문학회, 2011, 11쪽; 김풍기, 「고전의 번역과 대중화, 그 현실과 전망」, 『우리말글』 56, 우리말글학회, 2012, 43~62쪽.

4) 박진임, 「문학 번역과 문화 번역: 한국 문학 작품의 영어 번역에 나타나는 문제점 연구」, 『번역학연구』 5(1), 한국번역학회, 2004, 98쪽.

5) 김문희, 「장편가문소설의 현대역의 문제와 고전의 재구성」, 『우리말글』 57, 우리말글학회, 2013, 161~190쪽.

6) 임치균(2011), 앞의 논문, 7~32쪽.

www.kci.go.kr

보완하는 동시에 출판 생태계 전반을 이해하고 소비문화와 유통사적 맥락에서 출판 방향을 새롭게 재구성하는 일이 요청된다. 국문장편소설의 유통사가 말해주듯이 달라진 독서문화와 소비 형태를 고려하지 않으면 고전의 가치를 온전히 전달하고 인정받기 힘든 까닭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국문장편소설의 현대적 출판 양상과 형태를 총체적으로 살펴 고전에 대한 접근성을 강화하고 대중적 향유를 촉진하고자 한다. 기왕의 연구에서 현대역본의 문제와 현대역의 실제가 논의되었으므로[7] 여기서는 연구 대상과 범위를 기존 34종에서 65종으로 넓히고 콘텐츠 이용 형태와 유통 상황에 초점을 맞춰 국문장편소설의 현대적 출판과 대중화 방안을 탐색하고자 한다.

우선 현재까지 영인, 교주, 현대역된 국문장편소설의 서지 데이터를 한데 모아 정리하고 이를 바탕으로 출판 형태와 궤적을 추적하려고 한다. 이를 통해 국문장편소설이 현재 어떤 모습으로 독자와 만나고 있는지, 65종에 이르는 작품 중에서 어떤 작품이 현대 출판물로 재탄생했는지, 소설사적 흐름에서 대중성과 인지도를 갖추었음에도 현대어로 옮겨지지 못한 작품이 어떤 것인지 등에 답할 수 있을 것이다. 이어 거질의 장편소설이 시간의 간극을 넘어 현대 독자에게 닿을 수 있도록 콘텐츠 이용 형태를 염두에 두되 고유한 미감이 전달될 수 있게 장르적 속성을 살리는 방향에서 현대적 출판 방향과 대중화 전략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 연구가 국문장편소설을 독자에게 돌려보내는 또 하나의 디딤돌이 되길 기대해 본다.

2. 현대적 출판 목록과 양상

국문장편소설은 현대 출판시장에 어떤 형태로 존재하며 어떤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을까. 그동안 발행된 국문장편소설의 현대적 출판물을 집적함

7) 임치균(2011), 위의 논문, 7~32쪽; 김문희(2013), 앞의 논문, 161~190쪽.

www.kci.go.kr

으로써 그 일단을 살펴보자.[8] 현대적 출판 형태는 영인, 교주, 교감, 주석, 역주, 현대역으로 다양한데 여기서는 영인, 교주(한자병기, 주석, 교감), 현대역(역주)으로 구분하고 출판 매체의 변화를 고려하여 전자책(e)을 목록에 포함하고자 한다. 그리고 서지정보유통지원 시스템에서 현대역본 〈유효공선행록〉, 현대역본(e) 〈명주보월빙〉, 현대역본 〈엄씨효문청행록〉 등을 확인할 수 있지만, 미납본 혹은 미유통 상태라[9] 출판 목록에서 제외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국문장편소설의 현대적 출판 목록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표1> 현대적 출판 목록[10]

8) 출판 목록은 조희웅, 『한국고전소설사큰사전』 1~74, 지식을만드는지식, 2017; 김문희(2013), 앞의 논문, 166~170쪽; 서지정보유통지원시스템(http://seoji.nl.go.kr); 교보문고(http://www.kyobobook.co.kr); YES24(http://www.yes24.com) 등을 참조하여 정리하였다.

9) 서지정보유통지원시스템, http://seoji.nl.go.kr(검색일자: 2021.10.10.)

10) 서예 분야의 역주본은 목록에서 제외하는 대신에 각주로 정리해 두고자 한다. 임인선, 『옥원중회연 21』, 다운샘, 2007; 조용선, 『옥원듕회연 권지 18』, 서예문인화, 2007; 서정수, 임인선, 『한글서예연구총서 14 완월회맹연』, 다운샘, 2010; 강명순 외, 『옥원듕회연』, 지식과감성, 2018; 고은, 지성룡, 『위시오세현행녹 권지이십칠』, 고연, 2019; 지성룡, 『옥원중회연 권11』, 고연, 2019; 지성룡, 『옥원중회연 권16』, 고연, 2019; 지성룡, 『화뎡션행록 제7권』, 고연, 2019; 지성룡, 『한조삼성기봉 권지1』, 고연, 2019.

www.kci.go.kr

번호	작품명	서지사항				형태		
		편/역자	표제	출판사	연도	영인	교주	현대역
1	구래공 정충직절기	김동욱	나손본필사본고소설자료총서1	보경문화사	1991	○		
		김광순	김광순소장필사본한국고소설전집31	경인문화사	1994	○		
		창성편집위원회	한국고문학자료총서고소설필사본편6	창성	2001	○		
2	도앵행	조선학회	조선학보67-69 도잉힝	조선학회	1973	○		
3	명주기봉	문화재관리국장서각	明珠奇逢 上下	양서문화사	1977	○		
		김광순	김광순소장필사본한국고소설전집65	박이정	2004	○		
4	명주보월빙	한국정신문화연구원 고전연구실	한국고대소설대계1 명주보월빙1-5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0		○	
		고려서림	명주보월빙	고려서림	1986	○		
		월촌문헌연구소	한글필사본고소설자료총서10-16	오성사	1986	○		

www.kci.go.kr

		창성편집위원회	한국고문학자료총서 고소설필사본편 19-21,23-27,29-30,37	창성	2001	○		
		최길용	낙선재본결권 명주보월빙 권지칠십팔 복원	선문대학교중한번역문헌연구소	2013		○	
		최길용	(교감본)明珠寶月聘1-5	학고방	2014		○	
		〃	〃	〃	2019		e	
		최길용	(현대어본)명주보월빙1-10	학고방	2014			○
5	명주옥연기합록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영남대학교민족문화연구소 민족문화자료총서27 명주옥연기합록	경인문화사	2013	○		
		서인석 외3	명주옥연기합록	영남대학교출판부	2018			○
6	명행정의록	한국학진흥연구사업추진회	낙선재본고전소설총서2 명행정의록1-9	한국학중앙연구원	2006-2007	○		
7	몽옥쌍봉연록	김기동	필사본고소설전집7 夢玉雙鳳緣錄	아세아문화사	1980	○		
		최길용	(교감본)몽옥쌍봉연록	학고방	2017		○	
		〃	〃	〃	2019		e	
		최길용	(현대역본)몽옥쌍봉연록	학고방	2017			○
		〃	〃	〃	2019			e
8	벽허담관제언록	문화재관리국장서각사무소	문화재관리국장서각귀중본총서 벽허담관제언록1,2,3	문화재관리국장서각사무소	1980 1989 (재간)	○		
		김광순	김광순소장 필사본 한국고소설전집54	박이정	2002	○		
9	보은기우록	창성편집위원회	한국고문학자료총서 고소설필사본편24	창성	2001	○		
		이화여대한국언어문학 연구소	보은기우록1-2	이화여대출판부	1976		○	
		임치균 외3	조선왕실의 소설11 (교주본)보은긔우록	한국학중앙연구원출판부	2018		○	
		임치균, 김인회, 홍현성	조선왕실의 소설11 (현대역본)보은기우록	한국학중앙연구원출판부	2019			○
		〃	〃	〃	2020			e
10	삼강명행록	김기동	한국고전소설총서7-13 삼강명행록	태학사	1983	○		
11	설씨이대록	월촌문헌연구소	한글필사본고소설자료총서23,24,66	오성사	1986	○		
		김동욱	나손본필사본고소설자료총서22	경인문화사	1991	○		
		김수봉	한글필사본고소설 역주해 총서2	국학자료원	2001			○
12	성현공숙렬기	김기동	한국고전소설총서1-3 성현공숙렬기	태학사	1983	○		
		김수봉	한글필사본고소설 성현공숙열기1-8	한국학술정보	2010			○
		〃	〃	〃	2016			e
13	소문록	김기동	필사본고전소설전집12-13 소문록1-14	아세아문화사	1980	○		
14	소현성록	김기동	필사본고전소설전집7 蘇玄聖錄	아세아문화사	1980	○		
		월촌문헌연구소	한글필사본고소설자료총서24-25	오성사	1986	○		
		정선희, 조혜란 외	이화한국문화연구총서8 삼대록계국문장편소설 소현성록1-4	소명출판사	2010			○
		〃	〃	〃	2011			e
		지연숙	한국고전문학전집18 소현성록	문학동네	2015			○

www.kci.go.kr

15	쌍천기봉	M.I 니끼찌나.AF. 뜨로쩨비치	동양제민족고서적소총서15 雙釧奇逢	소련과학원	1962			○
		장서각사무소	쌍천기봉1-3	장서각사무소	1979	○		
		오희복	쌍천기봉 상하	평양:문예출판사	1983-1984			○
		허문섭 외	쌍천기봉	민족출판사	1986			○
		오희복	쌍천기봉	평양: 문학예술출판사	2005-2007			○
		장시광	원전으로읽는우리고전3(팔찌의인연) 쌍천기봉1-9	이담북스	2017-2019			○
		〃	〃	〃	2020			e
16	양문충의록	한국중앙연구원 장서각	낙선재고전소설총서4 양문충의록1-7	한국학중앙연구원	2011	○		
17	양현문직절기	김기동	필사본고전소설전집17-19 양현문직절기 楊賢門直節記1-34	아세아문화사	1980	○		
18	엄씨효문청행록	한국정신문화연구원 고전연구실	한국고대소설대계3 엄씨효문청행록, 화문록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2		○	
		최길용	(교감본)엄씨효문청행록1-2	학고방	2021		○	
19	영이록	한국학연구원	국어국문학총림35 원본 태평광기언해, 영이록	대제각	1987	○		
		월촌문헌연구소	한글필사본고소설자료총서25 손천사영이록	오성사	1986	○		
		이화여대 한국어문학연구소	한국고대소설총서3 영이록, 태원지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1973		○	
		임치균, 허원기	조선왕실의 소설3 (교주본)녕이록 靈異錄	한국학중앙연구원	2010		○	
		임치균, 이래호	조선왕실의 소설3 (현대어본)녕이록 靈異錄	한국학중앙연구원	2010			○
		〃	〃	〃	2013			e
20	옥기린	박재연, 양승민	옥기린 玉麒麟	다운샘	2004		○	
21	옥린몽	김수봉	한글필사본고소설 옥린몽1-5	한국학술정보	2008			○
		〃	〃	〃	2013			e
22	옥난기연	최길용	옥난기연	학고방	2019		○	
23	옥원재합기연	김기동	필사본고전소설전집27-30 옥원재합기연 玉鴛再合奇緣1-21	아세아문화사	1980	○		
24	옥환기봉	월촌문헌연구소	한글필사본고소설자료총서36,78-79	오성사	1986	○		
		조동일	조동일소장국문학연구자료15	박이정	1999	○		
		김수봉	한글필사본고소설역주해총서Ⅳ 연당이소져전, 옥환기봉, 정슈경전		2003			○
25	완월회맹연	고려서림	낙선재소설제1輯 완월회맹연	고려서림	1986	○		
		김진세	완월회맹연1-12	서울대출판부	1989-1994		○	
		〃	〃	〃	2007		e	
		정창권	조선의세계명작 완월회맹연	월인	2013			○
		완월회맹연 번역연구모임	(교주)완월회맹연1-3	휴머니스트	2022		○	

www.kci.go.kr

26	유씨삼대록	김기동	한국고전소설총서4-6 유씨삼대록1-20	태학사	1983	○		
		월촌문헌연구소 편	한글필사본고소설자료총서6-8 뉴시삼록	오성사	1986	○		
		김광순	한국고소설전집38-40	경인문화사	1994	○		
		김동욱	나손본필사본고소설자료총서38-40	보경문화사	1991	○		
		고려서림	고전소설제3집 유씨삼대록1-2	고려서림	1988	○		
		조동일	조동일소장국문학연구자료17	박이정	1999	○		
		창성 편집위원회	한국고문학자료총서 고소설필사본편12-15	창성	2001	○		
		김광순	김광순소장필사본한국고전소설전집64	박이정	2004	○		
		한길연, 김지영 외	이화한국문화연구총서9 삼대록계국문장편소설 유씨삼대록1-4	소명출판사	2010			○
		〃	〃	〃	2011			e
27	유이양문록	국학진흥연구사업추진회	낙선재본고소설총서3 뉴니냥문녹1-8, 뉴니냥문녹9-11	한국학 중앙연구원	2008/ 2012	○		
28	유화기연	김기동	활자본고전소설전집5 柳花奇夢 류화기몽	아세아문화사	1976	○		
		이윤석, 김경미	연세국학총서34 유화기연, 숙녀지기	경인문화사	2008			○
29	유효공선행록	김기동	필사본고전소설전집15-16 柳孝公善行錄 유효공선행록1-13	아세아문화사	1980	○		
		월촌문헌연구소	한글필사본고소설자료총서8 뉴효문공션행녹	오성사	1986	○		
		김동욱	나손본필사본고소설자료총서41-43	보경문화사	1991	○		
		창성 편집위원회	한국고문학자료총서 고소설필사본편16	창성문일문화사	2001 2004 (재간)	○		
		최길용	(교감본)유효공선행록	학고방	2018		○	
		〃	〃	〃	2018		e	
30	윤하정삼문취록	한국정신문화연구원 고전연구실	윤하정삼문취록1-5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2		○	
		최길용	(교감본)尹河鄭三門聚綠1-5	학고방	2015		○	
		최길용	(현대역)윤하정삼문취록1-7	학고방	2016			○
		〃	〃	〃	2019			e
31	이씨효문록	월촌문헌연구 소	한글필사본고소설자료총서39-40 이시충효록	오성사	1986	○		
		김동욱	나손본필사본고소설자료총서49	보경문화사	1999	○		
		김광순	김광순소장한국필사본고소설전집6-7	경인문화사	1993	○		
		김광순	김광순소장한국필사본고소설전집29	경인문화사	1994	○		
32	임씨삼대록	김지영 외	이화한국문화연구총서12 삼대록계국문장편소설 임씨삼대록1-5	소명출판사	2010			○
		〃	〃	〃	2011			e
33	임화정연	김기동	활자본고전소설전집8-9 林花鄭延	아세아문화사	1986	○		
		최인욱	한국고소설전집10 林花鄭延	을유문화사	1962			○
		조령출, 조윤옥	사성기봉 상.하	문예출판사	1983			○
		박재연, 김영, 김정녀, 최길용	한글생활사자료총서 고소설 님화뎡연긔봉1-6	학고방	2008		○	

www.kci.go.kr

34	제호연록	김동욱	나손본필사본고소설자료총서57	보경문화사	1991	○		
35	조씨삼대록	김문희, 정선희, 전진아, 허순우, 장시광	이화한국문화연구총서11 삼대록계국문장편소설 조씨삼대록1-5	소명출판사	2010			○
		〃	〃	〃	2011			e
36	창란호연록	김기동	필사본고전소설전집9-10 창란호연록 昌蘭好緣錄	아세아문화사	1980	○		
		월촌문헌연구소	한글필사본고소설자료총서96	오성사	1986	○		
		김광순	김광순소장필사본한국고소설전집30	경인문화사	1994	○		
		김광순	김광순소장필사본한국고소설전집60	박이정	2002	○		
		김광순	김광순소장필사본한국고소설전집81	박이정	2007	○		
		김수봉	한글필사본고소설 (역주해)창란호연록 1-12	한국학술정보	2012			○
		〃	〃	〃	2012			e
37	천수석	김기동	필사본고전소설전집23 텬슈석 泉水石	아세아문화사	1980	○		
		이대 한국언어문학연구소	한국고대소설총서2 천수석	이화여대 출판부	1972-1975		○	
		전규태	낙선재소설 천수석, 낙천등운, 태원지	서강출판사	1976			○
		전규태	한국고전문학대계 낙선재소설	명문당(서강출판사 재판)[11]	1991			○
		임치균 외	텬슈석	한국학중앙연구원 출판부	2012		○	
		임치균, 임정지	조선왕실의소설6 (현대어본)천수석	한국학중앙연구원 출판부	2012			○
		〃	〃	〃	2013			e
38	하진양문록	김기동	활자본고소설전집11 河陳兩門錄	아세아문화사	1977	○		
		월촌문헌연구소	한글필사본고소설자료총서 48 하진양문녹이라	오성사	1986	○		
		김광순	김광순소장필사본한국고소설전집29 하딘양문녹	경인문화사	1994	○		
		조동일 편	조동일소장국문학연구자료23	박이정	1996	○		
		윤석범, 리동윤 주해, 김광현 윤색 김충기 주해	조선고전문학전집12-13 하진량문록 상하	평양:문예출판사	1987			○
		〃	하진량문록 상하	서울:연문사 (문예출판사재판)	2000			○
		이대형	연세국학총서34 세책고소설2-3 하진양문록1-3	이회문화사	2004			○
		국학진흥연구사업 진흥위원회	낙선재본고전소설총서 I 하진낭문녹 1-4	한국학중앙연구원	2005	○		

11) 김문희(2013), 앞의 논문, 168쪽 참조.

www.kci.go.kr

39	한강현전	서인석	국어국문학연구26 영대본 한강한전 해제및주석	영남대 국어국문학과	1998		○	
40	한조삼성기봉	김기동	필사본고전소설전집25-26 한조삼성기봉 漢祖三姓奇逢 1-14	아세아문화사	1980	○		
		임치균 외3	조선왕실의소설7 (교주본)한조삼셩긔봉	한국학중앙연구원 출판부	2013		○	
		임치균, 임정지	(현대어본)한조삼성기봉	한국학중앙연구원 출판부	2013			○
		〃	〃	〃	2014			e
41	현몽쌍룡기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장서각소장고소설자료집1 현몽쌍룡긔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8	○		
		김문희, 장시광, 조용호 외	이화한국문화연구총서10 삼대록계국문장편소설 현몽쌍룡기1-3	소명출판사	2010			○
		〃	〃	〃	2011			e
42	현봉쌍의록	월촌문헌연구소	한글필사본고소설자료총서49	오성사	1986	○		
		김동욱	나손본필사본고소설자료총서2,12 현빙상의록	보경문화사	1991	○		
		김광순	김광순소장한국필사본고소설전집50 현봉쌍의록	박이정	1998	○		
		창성 편집위원회	한국고문학자료총서 고소설필사본편	창성문일문화사	2001 (2004 재간)	○		
43	현씨양웅쌍린기	김기동	활자본고소설전집12 현씨량웅쌍린긔 玄氏兩雄雙麟記	아세아문화사	1977	○		
		이윤석, 이다원	연세국학총서34 현씨양웅상린기 Ⅰ-Ⅱ	경인문화사	2006			○
44	화문록	문화재관리국	花門錄	문화재관리국 장서각사무소	1974	○		
		이상택 외	한국고대소설대계3 엄씨효문청행록, 화문록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2		○	
		임치균 외3	조선왕실의소설5 (교주본)화문녹 花門錄	한국학중앙연구원 출판부	2011		○	
		임치균, 송성욱	조선왕실의소설5 (현대어본)화문록 花門錄	한국학중앙연구원 출판부	2011			○
		〃	〃	〃	2013			e
45	화산기봉	김기동	활자본고전소설전집12 華山奇逢	아세아문화사	1977	○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장서각소장고소설자료집2 화산긔봉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8	○		
		임치균	(교주본)화산기봉	한국학중앙연구원 출판부	2019		○	
		임치균, 김인회	조선왕실의소설10 (현대어본)화산기봉	한국학중앙연구원 출판부	2018			○
		〃	〃	〃	2019			e
46	화산선계록	고려서림	華山仙界錄1	고려서림	1986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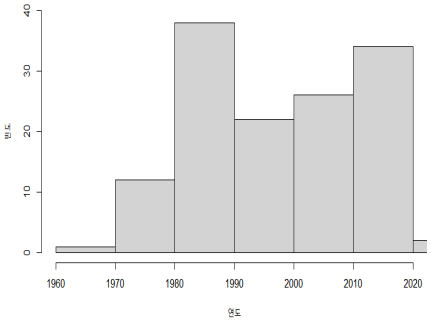
www.kci.go.kr

47	화씨충효록	김동욱	나손본필사본고소설자료총서80	보경문화사	1991	○		
		김광순	김광순소장필사본한국고소설전집60	박이정	2002	○		
		김광순	김광순소장필사본한국고소설전집75	박이정	2007	○		
		월촌문헌연구소	한글필사본고소설자료총서50,51,101	오성사	1986	○		
		국학진흥연구사업추진위원회	한국학자료총서35 花氏忠孝錄 화시충효록1-5	한국정신문화연구원	2004	○		
48	화씨팔대충효록	월촌문헌연구소	한글필사본고소설자료총서51	오성사	1986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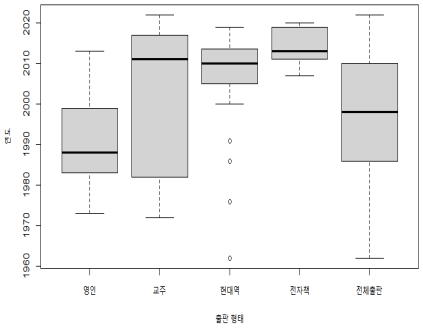
위의 표에 나타나듯이 국문장편소설은 2021년 기준, 48종의 작품이 영인(79편), 교주/교감/주석(25편), 역주/현대역(31편) 되고 그 총량은 135편에 이른다.[12] 디지털 아카이브로 제공되는 원문 이미지와 한자를 병기한 텍스트까지 더하면 출판량은 더 늘어날 것으로 추산된다.

먼저 국문장편소설의 출판 현황과 형태별 분포를 살펴봄으로써 현대적 출판 흐름을 조망해 보자.

<도표1> 연대별 출판 현황



<도표2> 출판 분포와 범위



〈도표1〉 은 국문장편소설의 출판 빈도를 연대별로 범주화한 것이며, 〈도표2〉 는 출판 형태별 분포와 범위를 구조화한 것이다. 연대별 출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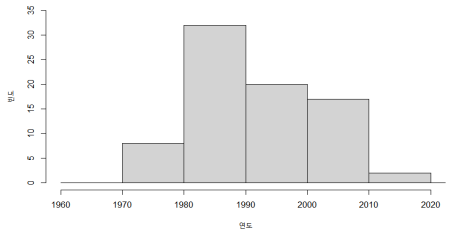
12) 출판사와 매체가 바뀐 재간본, 해외 번역본, 북한 출판본은 총량에서 제외하였다.

www.kci.g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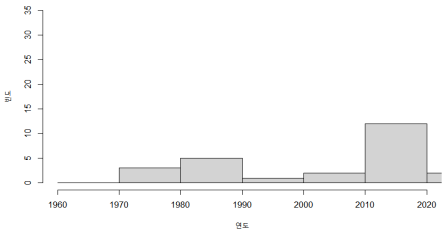
추이를 보면 1960년대 1편에 불과했던 출판량이 1970년대 12편으로 늘고 1980년대 38편으로 전 시기 대비 약 3배 이상 증가한다. 당시 고전소설의 원전 수집과 정리가 활기를 띠면서 국문장편소설의 영인 작업이 함께 늘어난 것이다. 1990년대 출판량은 22편으로 1980년대 대비 약 43% 감소하지만, 필사본 중심의 영인은 계속된다. 2000년대 들어 출판량이 26편으로 소폭 상승하고 2010년대 35편으로 좀 더 증가한 양상을 보인다. 이는 국문장편소설의 대중적 출판물이 늘고 독자층 구분에 따른 분할 출판이 일어난 까닭이다. 그리고 〈도표2〉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출판 매체는 2000년대 중후반 전자책으로 확장되고 교주와 현대역 출판은 2010년대부터 본격화된다.

이제 출판 형태별로 나누어 국문장편소설의 출판 상황을 들여다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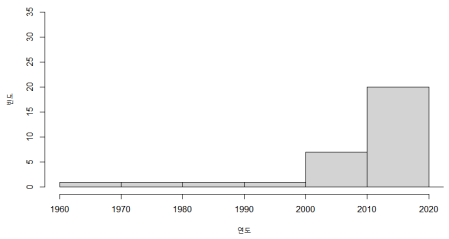
<도표3> 영인본 출판 현황



〈도표4〉 교주본 출판 현황



<도표5> 현대역본(역주) 출판 현황



국문장편소설의 영인은 1973년 〈도앵행〉에서 출발한다. 1970년대

www.kci.go.kr

『활자본 고전소설 전집』의 발간으로 이 시기 몇 편 안 되는 활자본 국문 장편소설이 영인된다. 〈도표3〉에 나타나듯이 1980년대 영인 출판량은 최고치를 기록한다. 『필사본 고소설 전집』과 『한글필사본 고소설 자료 총서』의 발행 덕분이다. 1990년대 출판량은 전 시기 대비 약 39% 감소하지만, 『나손본 필사본 고소설 자료 총서』와 『김광순 소장 한국 필사본 고소설 전집』의 발간이 이어지면서 국문장편소설의 영인도 계속된다. '1970∽1990년대 사이 고전소설의 원전(필사본, 방각본, 활자본) 수집이 대부분 끝나지만,'[13] 『낙선재본 고전소설 총서』와 『김광순 소장 한국 필사본 고소설 전집』의 출간으로 2000년대까지 15편 이상이 영인된다. 하지만 2000년대 이후 원문의 전산화 작업이 가속화됨에 따라 자료정리 형태와 원문제공 방식이 달라지면서 영인은 급감하고 디지털 플랫폼으로 그 역할이 옮겨간다.

현재 고문서의 원문 DB 사업으로 국문장편소설을 포함한 다수의 고전 자료가 디지털 아카이브로 제공되고 있다. 오픈 액세스(open access)가 가능한 플랫폼은 디지털한글박물관과 한국학디지털아카이브이다. 디지털한글박물관에서는 2010년 국립국어원 이관 자료의 문헌 자료 해제 사업(〈유효공선행록〉, 〈소현성록〉 등), 2015년 소장자료 원문 DB 사업(〈뉴시삼대록〉, 〈현씨쌍린기〉, 〈명주기봉〉 등), 2016년 박순호 구장 한글필사본 고소설 원문 DB 사업(〈곽장양문록〉, 〈둥앵행(도앵행)〉 등)으로 구축한 다수의 국문장편소설을 서비스하고 있다.[14] 한국학디지털아카이브에서는 〈명행정의록〉, 〈벽허담관제언록〉, 〈엄씨효문청행록〉 등 10여 종의[15] 원문 이미지와 해제, 그리고 활자화한(한자병기, 띄어

13) 신해진, 「〈필사본 고소설 100선〉 역주작업의 의의 및 그 후속 역주와 DB 구축을 위한 제언」, 『국학연구론총』 22, 택민국학연구원, 2018, 50쪽.

14) 디지털한글박물관 http://archives.hangeul.go.kr(검색일자: 2020.11.30.)

15) 〈명힝졍의록〉 1∽70책, 〈벽허담관졔언녹〉 1∽26책, 〈엄시효문청힝록〉 1∽30

www.kci.go.kr

쓰기) 원문을 제공하고 있다. 종이책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분량의 제약을 덜 받는 전자출판은 방대한 규모의 서사를 효율적으로 유통할 수 있다. 이러한 개방형 플랫폼은 연구의 편리성과 향유의 확장성을 도모하는 데도 효과적이다.

교주는 1972년 이화여대 한국언어문학연구소에서 발행한 〈천수석〉이 처음이다. 1970년대 〈보은기우록〉과 〈영이록〉 등 3종의 교주본이 출간되고 1980년대 〈명주보월빙〉, 〈엄씨효문청행록〉, 〈화문록〉, 〈윤하정삼문록〉, 〈완월회맹연〉 등 5종이 더 발간된다. 이후 한동안 교주본이 출간되지 않다가 2000년대 역주 작업이 조금씩 활력을 얻으면서 교주본의 출간도 늘어난다. 〈도표4〉 교주본 출간 현황을 보면 2000년대 교주본 발행이 2편에 불과한데, 이는 역주본의 형태로 출판됨에 따라 단일 교주본의 출판이 감소한 것일 뿐 교주와 주석이 줄어든 것은 아니다. 오히려 2000년대 교주는 이전 시기보다 활발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2010년대 들어 다시 교주본이 증가한 것은 독자층을 구분하여 교주본과 현대역본을 따로 발행하는 형태로 출판 방식이 전환된 까닭이다.

현대역은 1962년 〈임화정연〉이 첫발을 뗀다. 을유문화사에서는 농어촌의 문화진흥을 위하여 고전소설을 현대적 수법으로 새로 쓴 『한국 고대소설 전집』 20권을 현역 작가에게 의뢰하여 출판하는데,[16] 〈임화정연〉은 최인욱 작가에 의해 현대어로 옮겨진다. 원작에 충실한 현대역은 아니지만, 국문장편소설의 현대적 유통이 드물었던 당시 새로운 독자층을 겨냥한 현대역본으로서 가치가 있다. 1962년은 M.I 니끼찌나. AF. 뜨로쩨비치가 소련과학원에서 〈쌍천기봉〉을 출간한 해이기도 하다.

책, 〈완월회밍연〉〉 1∽180책, 〈뉴시삼딕록〉 1∽20책, 〈뉴니냥문녹〉 1∽77책, 〈윤하뎡삼문취록〉 1∽120책, 〈한조삼셩〉 1∽14책, 〈현몽빵룡긔〉 1∽18책. 한국학디지틸아카이브 http://yoksa.aks.ac.kr/main.jsp(검색일자: 2021.10.30.)

16) 「古代小說全集刊行 乙酉文化社서 計劃」, 『동아일보』, 1962.01.23.

www.kci.go.kr

이후 십여 년 동안 국문장편소설의 현대적 출판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다. 1980년대 북한에서 〈쌍천기봉〉, 〈하진양문록〉, 〈임화정연〉 등 여러 장편소설을 현대어로 풀어 고전으로서의 가치를[17] 전파하던 것과 구별된다. 〈도표2〉 현대역 출판 분포와 범주에 나타나듯이 1990년대 초반까지 국내에서 현대역본 출간은 아주 드물었다. '1990년대 이후 고전소설의 현대역과 대중출판물이 본격적으로 나오던 상황'[18]과 대조된다. 이렇듯 2000년대 이전 국문장편소설의 현대역은 다른 고전소설 장르와 비교했을 때 가장 더딘 속도로 전개된다. 그도 그럴 것이 거질의 장편소설을 현대어로 옮기려면 긴 시간, 큰 모험을 감행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국문장편소설의 현대어 번역은 한글 필사본 고전소설의 역주 바람을 타고 서서히 증가한다. 2010년 7종의 현대역본이 쏟아지는데 '삼대록계 국문장편소설'의 역주 성과(5종)에 힘입은 바가 크다. 그리고 '조선왕실의 소설 시리즈'의 활약도 빼놓을 수 없다. 2000년대 들어 현대역 출간이 증가한 것은 고전의 가치 확산과 콘텐츠화 움직임이 맞물려 나타난 실천적 노력의 결과이다.

2010년대 들어 매년 한두 편의 현대역본이 출간되는 등 국문장편소설의 현대적 출판 상황은 이전보다 나아졌다. 그럼에도 한국 출판시장의 규모와 전체 작품 수에 비하면 출판량은 여전히 부족하다. 60%에 가까운 작품이 아직 현대어로 옮겨지지 못했으며 문학성과 상품성이 높은 작품조차 현대 독자에게 알려지지 못했다. 현대역된 작품 중에는 〈임화정연〉 처럼 40~60년을 훌쩍 넘긴, 그래서 이미 현대역조차 예스럽거나 출판시장과 소비패턴에 적합한 새로운 형태의 번역이 필요한 작품도 상당하다. 이것이 절대

17) 1960년대와 1980년대 북한과 소련에서 <쌍천기봉>이 번역되고 현대역된 점은 주목할 만하다. 김문희(2014), 앞의 논문, 174쪽.

18) 권혁래, 「고전소설의 다시쓰기 출판물 연구 시론」, 『고소설연구』 30, 고소설학회, 2010, 10~30쪽.

www.kci.go.kr

쉽지 않은 국문장편소설의 현대적 출판에 관심을 두고 새로운 출판 전략을 모색해야 하는 이유이다.

3. 현대적 출판 방향과 대중화 전략

현대적 출판 방향을 모색하기에 앞서 '현대 독자가 국문장편소설을 읽어야 할까'라는 근본적인 질문에 다시금 마주 서게 된다. 솔직히 말해 반드시 읽어야 할 정전이라고 강요할 수 없지만, 국문장편소설은 현대 독자에게 충분히 매력적인 서사이다. 통속적인 재미는 물론이거니와 사상, 종교, 제도, 이념, 의례, 음식, 놀이, 노동, 교육, 질병, 자연, 동식물 등에[19] 이르기까지 다종다양한 형상이 담겨 있어 지적 모험을 감행할 기회를 준다. 촘촘하게 엮인 거대한 서사 세계는 현대 독자에게 우리 고전의 색다른 즐거움을 안겨줄 것이며, 거기에 오롯이 깃든 인간의 기기묘묘한 감정표현과 개인, 가문, 사회와 얽힌 숱한 갈등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또 다른 해법을 건네줄 것이다. 특히 '하나의 모듈로서 독립적으로 존재하면서도 새로운 작품 탄생에 기여하며 하나의 거대한 스토리 월드를 구축'하는 국문장편소설의 창작 원리는[20] 현대적 스토리텔링 문법과 닮은 구석이 많아 콘텐츠 창작 기반으로 삼기에 더할 나위 없다. 긴 호흡의 서사를 분절하여 독서의 효율성을 추구한 향유 방식 또한 오늘의 콘텐츠 이용 방식과 잘 어울린다.

그럼에도 현대 독자에게 국문장편소설은 서양의 고전보다 더 낯선, 아니

19) 정선희, 「국문장편소설 연구의 현황과 나아갈 방향」, 『고소설연구』 50, 한국고소설학회, 2020, 5~58쪽.

20) '작가와 독자의 경계가 사라진 향유 방식은 기존 서사를 증폭시키거나 새로운 서사 창출에 기여한다. 이러한 국문장편소설의 창작 원리는 트랜스 미디어 스토리텔링 기법과도 유사하다.' (정혜경, 「서지 데이터로 본 국문장편소설-작품의 목록과 존재 양상을 중심으로」, 『고소설연구』 50, 고소설학회, 2020, 59~110쪽)

www.kci.go.kr

존재감조차 잘 알려지지 못한 게 사실이다. 국문장편소설의 매력을 현대 독자에게 전달하기 위해서는 우선 '번역의 시대성, 즉 시간의 간극을 좁히는'[21] 일이 필요하다. 지난날 국문장편소설의 대중화와 공공화 방안으로 원문의 활자화와 현대역의 필요성이 강조된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22] 그런데 잘 알려지지 않은 국문장편소설을 독자에게 돌려보내려면 현대어 번역만으로는 불충분하다. 작품과 독자를 잇고 지속 가능한 향유 환경을 조성하는 노력이 요청된다. 따라서 이 장에서는 현대역 방안을 포함하여 국문장편소설의 미감을 현대 독자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출판 방향과 대중화 전략을 살펴보고자 한다.

1) 교주와 현대역 대상 텍스트 선정

좋은 번역은 대상 텍스트를 선정하는 일이 기초가 된다. 부실한 원전의 토양에서 훌륭한 번역이 나오기 힘들기 때문이다.[23] 94% 이상이 필사본으로 유통된[24] 국문장편소설의 경우 대상 텍스트의 선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필사본은 전사 횟수가 누적될수록 의식적으로든 아니면 무의식적으로든 본문에 변화와 원문의 변형이 발생하기 마련이다.[25] 선본(善本) 연구와 교감 작업이 반가운 것은 이 때문이다. 사실 선학들의 수고로 원전에 대한 검증이 상당 부분 이뤄졌다. 그러나 〈도앵행〉 처럼 선본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작품이 있으므로[26] 현대역의 기반이 되는 서지학적 접근은 계속되어

21) 김풍기(2021), 앞의 논문, 36쪽 참조.

22) 김문희(2013), 앞의 논문, 22쪽; 한길연, 「대하소설의 자료사적 궤적과 공공화 방안」, 『고소설연구』 42, 고소설학회, 2016, 15쪽.

23) 박진임(2004), 앞의 논문, 99쪽.

24) 정혜경(2021), 앞의 논문, 141쪽.

25) 서지학개론 편찬위원회, 『서지학개론』, 한울아카데미, 2015, 91쪽.

26) 최윤희는 서사의 안정성과 정세함을 토대로 연대본A(2권2책)를, 이민주는 서사 분량을 근거로 천리대본(4권4책)을 선본으로 선정하였다. (최윤희, 「〈도앵행〉의 문헌

www.kci.go.kr

야 할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현대어 번역에 있어 교감과 교주는 원전을 정확하고 깊게 이해하는 토대가 된다. 그러나 2장에서 살폈듯이 국문장편소설의 다수가 교감/교주본이 부재한다. 예컨대 〈화씨충효록〉, 〈화씨팔대충효록〉, 〈명주기봉〉, 〈현봉쌍의록〉, 〈벽허담관제언록〉, 〈도앵행〉, 〈구래공정충직절기〉, 〈제호연록〉, 〈이씨효문록〉, 〈옥선현봉소설록〉, 〈하씨선행후대록〉, 〈명행정의록〉, 〈양현문직절기〉, 〈효의정충예행록〉, 〈이씨세대록〉 등이다. 재구와 교감 작업을 기다리는 작품도 있다. 〈설씨이대록〉, 〈옥기린〉, 〈취승루〉, 〈제호연록〉 등 낙질본으로 존재하는 작품을 포함해 완질본이지만 〈명주옥연기합록〉 처럼 선본에 오류가 있거나 〈천수석〉 처럼 완질본과 낙질본을 함께 살펴야 하는 작품을 예로 들 수 있다.

고전의 현대적 출판에 있어 주된 쟁점 가운데 하나는 어떤 작품을 대상으로 현대역할 것인가이다. 파편화된 독자의 요구를 충족하고 현대역본의 스펙트럼을 넓히려면 가능한 많은 작품을 번역하면 좋겠지만, 방대한 규모의 장편소설을 현대어로 바꾸는 일은 녹록지 않다. 180권의 〈완월회맹연〉은 1989년부터 1994년까지 교주 작업이 이어졌으며, 2010년에 발간된 삼대록계 국문장편소설 시리즈는 2005년에 시작하여 완역까지 5년이 걸렸다.[27] 그런 까닭에 현대역을 위한 대상 텍스트 선정에 공력을 들일 수밖에 없다.

그동안 번역 텍스트는 연구자의 개인 관심이나 연구 프로젝트의 기획 의도에 따라 결정된 측면이 있다. 현대역의 성과는 개인 연구의 확장이거

학적 연구」, 『우리어문연구』 28, 우리어문학회, 2007, 390쪽; 이민주, 「『도앵행』의 장면전개 연구」, 서울대 석사논문, 2017, 28쪽)

27) 이소현, 「미지의 국문장편소설, 5년간 현대 국어로 번역하다」, 『이대학보』, 2010.5.9. http://inews.ewha.ac.kr/news/articleView.html?idxno=15475(검색일자: 2021.12.15.)

www.kci.go.kr

나 연구 프로젝트의 결과물로 산출된 것이 대부분이다. 출판시장의 요구로 기획된 작품은 〈임화정연〉(을유문화사)과 〈소현성록〉(문학동네) 정도인데 이 또한 번역자와 연구 집단의 관점이 반영된 것이다. 오늘날 이름조차 낯선 국문장편소설을 독자의 요구에 기대어 출간하기는 쉽지 않다. 그래서 선행 연구에서는 "작품에 관한 연구 동향을 참고하여 작품성과 문학적 가치가 평가된 작품부터 현대역할"[28] 것을 제안하였다.

이에 대한 또 다른 대안은 국문장편소설의 서지 데이터를 집적하여 유통사적 맥락에서 대중성과 상품성을 확보한 작품을 발굴하여 이를 우선 번역하는 것이다. 현존하는 이본의 총량과 매체 수용력을 근거로 현대 독자에게 수용 가능성이 큰 작품을 예측해 볼 수 있는 터이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오랫동안 독자의 관심을 받으며 인기리에 읽힌, 즉 흥행력 있는 작품을 찾기 위해 필사본, 세책본, 석인본, 방각본, 활자본, 영인본, 교주본, 현대역본, 전자책 등을 망라하여 국문장편소설의 유통 현황 전반을 살펴보려고 한다. 이때 작품의 흥행력을 최대한 객관적으로 측정하기 위하여 현존하는 이본을 비롯해 세책 목록, 신문, 광고, 기타 목록에 있는 자료까지 포함하여 데이터의 총량을 산출할 것이다. 이를 토대로 국문장편소설의 유통 현황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표2〉 국문장편소설의 유통 현황[29]

순번	작품명	필사본[30]	세책본	석인본	방각본	활자본	영인본	교주본	현대역본	전자책
1	현씨양웅쌍린기	101	○			○	1		1	
2	유씨삼대록	100	○				8		1	1
3	옥린몽	94	○	1		○			1	1
4	화씨충효록	89					5			

28) 김문희(2013), 앞의 논문, 180쪽.

29) 국문장편소설의 판본별 서지 데이터는 다음의 논문을 참조하였다(정혜경(2021), 앞의 논문, 117~156쪽). 광고와 목록으로 확인되는 작품은 △로 표시하고 작품의 흥행력을 측정하는 차원에서 북한 현대역본도 포함하였다.

www.kci.go.kr

5	창란호연록	78	○			△	5		1	1
6	유효공선행록	76	○				4	1		1
7	화씨팔대충효록	58					1			
8	명주기봉	56	○			△	2			
9	옥환기봉	33	○				2		1	
10	소현성록+소씨삼대록	32	○				2		2	1
11	현봉쌍의록	30					4			
12	벽허담관제언록	29	○				2			
13	도앵행	28	○				1			
14	구래공정충직절기	25	○				3			
15	제호연록	21					1			
16	임화정연	19	○			○	1	1	2	
17	하진양문록	18	○			○	5		3	
18	설씨이대록	16					2		1	
19	이씨효문록	15					4			
20	옥선현봉소설록	14								
21	하씨선행후대록	13	○							
22	성현공숙렬기	11	○				1		1	1
23	명행정의록	10	○				1			
24	보은기우록	7	○				1	2	1	1
25	양현문직절기	7	○				1			
26	완월회맹연	7					1	2	1	1
27	이씨세대록	7	○							
28	한강현전	7						1		
29	효의정충예행록	7	○							
30	명주보월빙	6	○				3	3	1	1
31	몽옥쌍봉연록	6					1	1	1	2
32	영이록	6					2	2	1	1
33	취미삼선록	6								
34	천수석	5	○				1	2	3	1
35	쌍천기봉	5	○				1			1
36	옥원재합기연	5					1			
37	엄씨효문청행록	5						2		
38	화정선행록	5								
39	곽장양문록+차천기합	4								
40	화산기봉	4				○	2	1	1	1
41	부장양문록	3								

www.kci.go.kr

42	옥난기연	3	○			△		1		
43	유이양문록	3	○				1			
44	윤하정삼문취록	3	○					2	1	1
45	임씨삼대록	3	○						1	1
46	명주옥연기합록	2					1		1	
47	소문록	2					1			
48	양문충의록	2					1			
49	위씨오세삼난현행록	2								
50	조씨삼대록	2	○			○			1	1
51	취승루	2	○							
52	한씨삼대록	2								
53	현몽쌍룡기	2	○				1		1	1
54	범문정충절언행록	1								
55	삼강명행록	1					1			
56	쌍성봉효록	1	○							
57	옥기린	1	○					1		
58	옥원전해	1								
59	유선쌍학록	1								
60	유화기연	1	○		1	○	1		1	
61	한조삼성기봉	1					1	1	1	1
62	화문록	1					1	2	1	1
63	화산선계록	1				△	1			

이상에서 살폈듯이 필사본 65종(1,106편), 세책본 34종, 석인본 1종, 활자본 7(11)종이 유통된 흔적이 남아 있다. 필사본으로는 〈현씨양웅쌍린기〉, 〈유씨삼대록〉, 〈옥린몽〉, 〈화씨충효록〉, 〈창란호연록〉, 〈유효공선행록〉, 〈명주기봉〉, 〈옥환기봉〉, 〈소현성록〉 등이 널리 읽히고, 활자본으로는 〈임화정연〉과 〈하진양문록〉 등이 주목받는다.[31] 현대 출판시장에서는 영인본 40종, 교주본 16종, 역주본 26종, 전자

30) 필사본 수는 현존하는 이본 수가 아니라 세책 목록과 광고로 존재한 텍스트까지 아우른 수치이다. 작품의 향유 흔적을 토대로 유통 상황과 작품의 흥행력을 좀 더 객관적으로 파악하기 위함이다.

31) 정혜경(2021), 앞의 논문, 117~156쪽.

www.kci.go.kr

책 20종이 유통된다. 영인, 교주, 현대역의 총합이 높은 출판물은 〈유씨삼대록〉(9회), 〈하진양문록〉(8회), 〈명주보월빙〉(7회), 〈창란호연록〉(7회), 〈천수석〉(6회), 〈유효공선행록〉(6회), 〈영이록〉(6회) 순이다. 교주와 현대역은 〈천수석〉(5회), 〈명주보월빙〉(4회), 〈하진양문록〉(3회), 〈임화정연〉(3회), 〈완월회맹연〉(3회), 〈영이록〉(3회), 〈보은기우록〉(3회) 순이며, 현대역은 〈하진양문록〉(3회), 〈천수석〉(3회), 〈소현성록〉(2회) 순으로 높다.

그러나 수많은 이본을 산출했던 다수의 국문장편소설이 현대어로 번역되지 못한 상태이다. 이본 총량을 기준으로 현대역이 우선 필요한 작품 십여 종을 간추리면 〈화씨충효록〉, 〈유효공선행록〉, 〈화씨팔대충효록〉, 〈명주기봉〉, 〈현봉쌍의록〉, 〈벽허담관제언록〉, 〈도앵행〉, 〈구래공정충직절기〉, 〈제호연록〉, 〈이씨효문록〉 등이 그 대상이 된다. 이미 현대역된 작품 중에도 새로운 현대역이 필요한 소설이 있다. 가령 필사본의 총량이 가장 많은 〈현씨양웅쌍린기〉이다. '현대역(한자병기)과 주석이 부가된 연구자용 도서'로[32] 일반 독자에게 가독성이 떨어진다. 이를 좀 더 쉽게 풀어쓰고 이용 형태에 맞게 다종의 현대역본으로 우선 출간해봄 직하다.

또한, 다매체로 유통된 작품을 우선 대상 텍스트로 선정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매체와 플랫폼의 전환은 작품의 생명력과 향유 정도를 보여준다. 독자층과 출판시장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지속해서 재생산된 〈옥린몽〉, 〈하진양문록〉, 〈임화정연〉 등을 우선순위에 둘 수 있다. 특히 〈임화정연〉의 경우 필사본과 활자본으로 유통되고 1962년과 1983년에 현대역되지만, 완역 또는 번역의 시대성을 충족한 새로운 형태의 번역이 필요하다. 최인욱 편저 〈임화정연〉은 '원작의 거대한 분량을 대폭

32) 김문희(2013), 앞의 논문, 168쪽.

www.kci.go.kr

축약한 개작본'이며,[33] 조령출과 조운옥 역 〈사성기봉〉은 북한에서 출판된 것이다. 게다가 2종 모두 번역된 지 40~60년이 흘러 새로운 현대역이 절실하다. 〈하진양문록〉의 사정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다. 그리고 활자본 시대 출판이 기획된 〈명주기봉〉, 〈창란호연록〉, 〈옥난기연〉, 〈화산선계록〉을 우선 번역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 활자본으로 출간된 7종이 모두 현대어로 번역된 점은 독서문화와 소비패턴이 달라졌음에도 흥행력 있는 작품의 인기가 오늘날에도 여전함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출판 형태와 방향을 염두에 두고 우선 텍스트를 선정할 경우 〈현씨양웅쌍린기〉, 〈임화정연〉, 〈하진양문록〉 등은 소비도서와 교육도서로, 〈화씨충효록〉, 〈유효공선행록〉, 〈명주기봉〉 등은 전문도서, 소비도서, 교육도서로 우선 출간해야 한다. 그리고 연작 지향성이 강한 장르적 특성을 살려 시리즈물로 출판할 경우 모든 연작이 인기를 끈 〈현씨양웅쌍린기〉 연작과 〈유효공선행록〉 연작을 우선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 후술하겠지만, 연작 시리즈 번역은 향유 지속성을 마련하고 연재형 플랫폼으로 향유 확장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 중요하게 고려해볼 만하다. 이렇게 국문장편소설사에서 흥행한 작품을 우선순위에 두고 교주와 현대역 작업을 진행한다면 대중적 향유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2) 현대적 출판 형태와 방향

국문장편소설의 현대적 출판은 소비도서, 전문도서, 교육도서 등으로 세분되고, 교주(교감)본과 현대역본을 따로 출간하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다. '전자책이 등장한 후부터 문자, 그림, 동영상, 사운드 등이 합쳐진 멀티미디어 출판물의 제작이 증가하는데,'[34] 국문장편소설은 2010년대를 전후하여

33) 김지연, 「〈임화정연〉의 현대적 출판과 개작의 특징」, 『고소설연구』 33, 한국고소설학회, 2012, 327쪽.

34) 이기성, 「출판학 연구 동향 및 특성에 관한 논문-한국출판학연구(1982~2006)를

www.kci.go.kr

종이와 전자 매체를 공용으로 하는 출판 형태가 나타난다. 그런데 국문장편소설이 시간의 간극을 넘어 현대 독자에게 쉽게 닿도록 출판 형태와 유통 방식을 소비문화와 장르적 특성에 맞게 재구성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우선, 대중적 친숙도가 떨어진 국문장편소설의 경우 방대한 작품의 분량이 수용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콘텐츠를 소비하는 호흡이 짧아지면서 조정래의 『태백산맥』과 박경리의 『토지』 등 대하소설을 종이책으로 즐겨 읽는 독자 인구도 줄어드는 추세다. 그래서 완역과 다른 형태의 축약본이 요구된다. 축약본은 여러 형태로 제작할 수 있다. 하나는 핵심 내용과 흥미로운 서사를 중심으로 서사를 재편집하는 것이다. 작품의 서사를 발췌한 축약본으로는 『조선의 세계명작 완월회맹연』이 있다.[35] 이렇게 연구자가 직접 분량을 줄이고 난이도를 조정하여 작품을 다시 엮을 수도 있지만, 축약된 형태로 유통된 이본을 대상으로 축약본을 제작하는 방법도 있다. 또 다른 하나는 부분적 향유가 가능한 축약본을 만드는 것이다.[36] 주지하듯이 국문장편소설은 단위담으로 구성되어 있어 유형 추출이 비교적 쉬운 장르이다. 인물별 혹은 모티프별로 축약본을 제작하면 국문장편소설의 다채로운 국면을 현대 독자에게 부담스럽지 않게 들려줄 수 있다. 축약본은 방대한 서사를 짧게 구성하여 독서의 효율성을 증대하는 효과도 있지만, 중고등학생이 접근하기 어려운 스토리나 갈등을 조율하여 재구성함으로써 소통력을 높이는 의미도 있다. 무엇보다 축약본은 국문장편소설의 본질적 향유 방식에 어긋나지 않는다. 유통사를 보더라도 긴 분량의 국문장편소설은 필사본 〈옥환기봉〉이나 활자본 〈임화정연〉과

중심으로」, 『한국출판연구』 51, 한국출판학회, 2006, 355쪽.

35) 정창권, 『조선의 세계명작 완월회맹연』, 월인, 2013, 1~194쪽.

36) 장대한 시공간과 수많은 인물이 등장하는 박경리의 『토지』는 긴 분량이 독서의 장애 요인으로 작용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박상민은 완독이 아닌 부분적 향유를 통한 느슨한 독서를 제안하였다. (박상민, 「박경리 토지의 서술 특징에 따른 대중적 향유 전략」, 『대중서사연구』 24(3), 대중서사학회, 2016, 260~278쪽)

www.kci.go.kr

〈화산기봉〉 처럼 축약본의 형태로 향유되었다. 낙질로 존재하는 수많은 이본과 발췌본도 부분적 향유가 가능한 국문장편소설의 한 양상이다.

또한, 독자층을 전문가와 일반인으로 구분하는 데서 나아가 세대와 취향을 염두에 둔 형태로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가령 노년층을 주 대상으로 한 출판을 생각해봄 직하다. 청소년층을 대상으로 한 문고판 교육도서 못지않게 인간의 생사고락과 파란만장한 가문의 이야기를 다룬 국문장편소설은 노년층이 즐길 수 있는 여가도서로 적합하다. 노년층을 위한 큰 글씨책과 오디오북은 새로운 향유층을 확보하고 시장 가치를 창출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고령 세대를 위한 콘텐츠로서 국문장편소설의 시대적 역할을 새롭게 규정하는 데도 유의미하다.

국문장편소설의 대중적 확산을 촉진하려면 현대역에서 나아가 이를 어떻게 유통하고 소비로 연결할 것인가에 관한 해법이 강구되어야 한다. 즉 출판 매체와 플랫폼의 변화가 불가피하다. 판본별 서지 데이터의 총합과 출판 형태에서 살폈듯이 국문장편소설은 시대와 독자층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며 매체와 플랫폼의 변화를 수용한 장르가 아니다.[37] 유통 채널과 매체의 전환으로 국문장편소설의 운명도 180도 달라졌다. 세책 시장을 주름잡던 국문장편소설이 활자본 시대에 이르러 대부분 출판시장에 편입되지 못함으로써 독자와 만날 기회조차 얻지 못한 게 사실이다. 국문장편소설의 현대역 출판에 있어서 매체와 플랫폼에 대한 고려와 이용 형태에 적합한 서비스 전략이 중요한 것은 이 때문이다.

물론 2000년대 들어 국문장편소설은 전자책으로 출간됨으로써 매체와 유통 채널의 다변화 흐름에 편승해 있다. '전자 출판시장의 영향력이 커졌으나 전체 출판산업의 매출은 아직 3.5%에 머물고 있으며'[38] 인지도가 낮

37) 정혜경(2021), 앞의 논문, 118쪽.

38) 문화체육관광부 콘텐츠정책국, 『2019년 기준 콘텐츠산업조사: 콘텐츠산업 통계조사』, 문화체육관광부, 2020, 104쪽.

www.kci.go.kr

은 국문장편소설의 경우 독서 매체의 전환만으로 대중적 향유를 이끌기 힘들다. 다시 말해 기존의 종이책과 전자책이 대중성이 약한 국문장편소설의 소비를 유도하거나 촉진하는 대안으로 여전히 미약하다. 국문장편소설을 콘텐츠 시장에 내놓기 전에 독서문화와 이용 형태를 기반으로 국문장편소설이 효과적으로 향유될 수 있는 최적의 소비환경을 찾고 그에 걸맞은 출판 방식을 결정하는 과정이 수반되어야 한다.

국문장편소설을 음성으로 전환한 오디오북이나 팟캐스트로 출력하는 방식을 고려해볼 만하다. 고전소설은 구술성이 강한 문학 양식이다. 고전소설 영화화가 변사의 구성진 해설로 이뤄진 무성영화로 출발했던 것도 이러한 방식이 고전소설을 읽어주던 이야기꾼, 전기수와[39] 유사했기 때문이다. 오늘날 소리의 영향력이 커졌을 뿐만 아니라 오디오북은 방대한 분량의 작품을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매체이다. '2021년 윌라의 오디오북 청취 총 시간은 1천 330만 시간으로 전년도(514만 시간) 대비 2.6배 성장하는데, 소설 분야의 경우 장편소설이 선호'된다. '2021년 12월 기준, 김진명의 『고구려』(7권)와 『셜록홈즈』(10권)가 소설 분야에서 나란히 1위와 2위를 차지하고, 박경리의 『토지』(20권)는 서비스 반나절 만에 실시간 순위 1위에 오르며 윌라 서비스 역대 최단 기록을 세운다.'[40] 이러한 출판시장의 흐름은 국문장편소설을 어떤 매체와 플랫폼으로 출판하는 것이 좋은가에 대한 해결책을 던져준다. 더욱이 국문장편소설을 가족과 궁인들이 읽어주던 향유 풍경은 오디오북으로서의 적합성을 시사해준다.

그간 고전소설을 오디오북으로 출간한 사례는 드물다. 오디오북을 유통하는 구독형 서비스 윌라의 클래식(고전) 항목에도 〈구운몽〉, 〈사씨남

39) 권순긍, 옥종석, 「고전소설과 콘텐츠, 그 제작 양상과 개발의 전망-영화콘텐츠를 중심으로」, 『한국고전연구』 43, 한국고전연구학회, 2018, 11쪽.

40) 「윌라 오디오북 이용자 청취 시간 2.6배 증가… "소설 강세"」, 『매일경제』, 2021.12. 09 https://www.mk.co.kr/news/culture/view/2021/12/1126577/(검색일자: 2021. 12.12.20.)

www.kci.go.kr

정기》, 〈홍길동전〉 등 중단편소설 십여 편이 전부다.[41] 예를 들어 2019년 리플레이에서 출판한 〈구운몽〉은 정씨책방에서 출간한 텍스트를 오디오북으로 제작한 것인데, 어려운 한자와 고어투 문장이 많아 가독성이 떨어진다. 현재 출간된 고전소설 오디오북은 대상 텍스트와 해제에 대한 검증이 아울러 필요한 상황이다. 다만 난해한 한자어와 고어투 문장이 현대 독자에게 또 다른 미감을 선사한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고어투 문장의 분위기가 고전소설을 듣는 즐거움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독자의 말을 빌리자면 "표현들이 지금의 글들과 달라 재미"[42]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독자평은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하는 고전을 모두 쉬운 현대어로 풀어야 한다는 기존 관점을 다시 생각하게 만든다. 〈사씨남정기〉를 처음 들었는데 재밌다고 리뷰한 독자는 작품을 이해하기 위해 다시 듣는 불편을 감수할 정도이다.[43] 물론 독서의 흐름을 깨는 이러한 난해한 현대역은 보완이 필요하지만, 고어투를 살려 새로운 듣는 재미를 주는 형태는 파편화된 독자의 이용 만족도를 높이는 또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오디오북 형태는 쉬운 현대역본과 고어투 현대역본 등으로 다양화하고 분량의 부피를 줄인 축약본이나 연재형으로 제작하여 국문장편소설에 대한 접근성과 향유 지속성을 만드는 것이 좋다. 특히 국문장편소설은 연재형 플랫폼으로 전환하기에 수월하다. 장면의 극적 전환으로 독자를 유인하고 긴 호흡의 서사를 효과적으로 분절하여 가독성을 높인 국문장편소설의 문법이 연재형 서비스의 원리와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연재형 서비스로는 앞서 언급한 흥행력을 갖춘 연작을 우선순위에 둘 수 있다. 질투의 화신과 이를 길들이기 위한 자들의 대결을 고도의 심리전으로 풀어낸 〈소현성

41) 윌라, https://www.welaaa.com/(검색일자: 2021.9.29.)

42) 윌라, https://www.welaaa.com/(검색일자: 2021.9.29.)

43) "고전이고 예전 소설이라 한번 듣고 이해가 안 된 건 앞부분을 다시 한번 돌아가서 들이니 이해하겠더라고요" 위의 자료, 같은 곳.

www.kci.go.kr

록〉 연작과 부부 갈등을 재치와 웃음으로 유쾌하게 그리면서도 부부 사이의 미묘한 감정선을 담아낸 〈현씨양웅쌍린기〉 연작이다. 이들 작품을 연재형 오디오북으로 서비스한다면 고전소설의 새로운 매력을 독자에게 들려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독자는 긴 분량의 국문장편소설을 부담 없이 연결성 있게 소비하는 것이 가능하다. 게다가 "윌라에서 연재형 등 다양한 오디오북 콘텐츠 확장에 나서고 있어"[44] 이는 실효성 있는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본다.

장르적 속성과 소비환경에 맞게 국문장편소설의 유통 방식을 다변화하는 것도 고전소설을 부담 없이 즐기는 이용 경로를 찾는 길이다. 인지도가 낮은 국문장편소설에 대한 접근 기회를 확충하려면 구독형 오디오 플랫폼과 도서 플랫폼과 같은 '다중 채널과 구독 모델 서비스를"[45] 활용해볼 만하다. 무제한으로 다양한 도서를 선택해 즐길 수 있는 소비구조는 이용자가 평소에 관심을 두지 않았던 고전소설 또는 국문장편소설까지 관심과 소비 영역을 넓히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이들 플랫폼에서는 시청이 분화된 이용자의 취향을 저격하기 위해 킬러 콘텐츠 못지않게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하려고 애쓰고 있다. 오디오북으로 변신한 국문장편소설은 이러한 틈새시장을 공략하기에 더할 나위 없는 콘텐츠이다.

끝으로, 현대적 출판에 있어 주안을 두어야 할 부분은 "학술 해제"이다.[46] 최고의 학술 해제는 작품의 가치와 시대적 의미를 담아낼 수 있어야 한다. 해제는 독자의 이해를 돕기도 하지만 작품의 시대적 의미와 역할을 일러준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그러나 해제가 오히려 고전의 세계를 축소하거나 현대적 소통 가능성을 차단하는 문제도 있다. 윌라에서 서비스하는 〈구운몽〉의 해제를 보면 작품의 비현실적 특성을 한계로 제시한다. 그런

44) 『매일경제』, 앞의 자료, 같은 곳.
45) 문화체육관광부 콘텐츠정책국(2020), 앞의 책, 99쪽.
46) 신해진(2018), 앞의 논문, 60쪽.

www.kci.go.kr

데 〈구운몽〉의 비현실성은 “경계를 넘어선 상상력의 확장”이다. 작품에 생명력을 더하고 오독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도 해제의 엄정성이 요구된다. 국문장편소설의 해제 방식은 〈소현성록〉의 본편을 현대어로 옮긴 문학동네 『소현성록』을 참조해볼 만하다.[47] 동시대인의 눈높이에 맞게 작품의 주요 성격과 위상을 쉬우면서도 흥미롭게 풀어낸 까닭이다. 이렇게 해제가 전문성에 바탕을 두고 재미를 더할 때 고전소설의 현대적 출판 의미는 커지고 대중화 속도는 좀 더 빨라질 것이다.

3) 대중적 확산과 브랜딩 전략

고전에 관심을 둔 능동적인 독자가 아닌 이상 국문장편소설을 읽어야 할 동기나 기회를 얻기 쉽지 않다. 그래서 이용자가 국문장편소설을 수용할 환경과 이용맥락이 함께 제공되어야 한다. 그 중요성은 문학동네 『한국고전문학전집』의 판매 부수에서도 확인된다. 판매량이 높은 〈한중록〉, 〈홍길동전〉, 〈전우치전〉은[48] 영화와 드라마로 재탄생하거나 미디어를 통해 대중에게 전파된 공통점이 있다. 이는 작품의 인지도와 대중성이 출판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바로 보여준다. 그런데 대중성을 확보한 고전소설은 의외로 많지 않다. 중고등학교 교육 과정에 편입된 고전소설 수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 지금의 교육은 잠재적 향유층인 청소년에게 알리는 최소의 기회마저 제공하지 못한다. 국문장편소설에 대한 접근성은 더 떨어진다. 우리의 고전이 아무리 가치 있다고 한들 그것이 독자에게 전달되지 않으면 시대성을 잃은 무용한 것이 될 것이며, 고전의 현대적 출판 위기는 더욱더 가속화될 수밖에 없다.

독자와 텍스트를 잇는 작업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 이에 대한 방안

47) 지연숙 옮김, 『소현성록』, 문학동네, 2015, 835~845쪽.

48) 권혁래, 「고전문학전집의 수요와 방향-‘대중성’과 ‘교양’을 어떻게 충족시킬 것인가?」, 『국제어문』 70, 국제어문학회, 2016, 98쪽.

www.kci.go.kr

으로 음성, 사진, 영상, 인포그래픽을 통한 음성/영상 콘텐츠와 긴 호흡의 장편소설을 효과적으로 방출할 수 있는 웹소설 콘텐츠를 기획해 볼 수 있다. 물론 그동안 고전의 가치와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고전소설 콘텐츠 개발안이 수없이 제출되었다. 그런데도 국문장편소설의 활용도는 여전히 낮다. 우리가 콘텐츠 제작자와 소비자를 직접 찾아 나서는 역동성이 요구되는 대목이다. 뉴미디어 시대의 소비층을 겨냥한 숏폼(short form)이나 짤 형식으로 출판물을 콘텐츠화하거나 구독형 도서 플랫폼과 메타버스(metaverse)에 기반한 클래스(강연)와 랜선 북토크를 열어 소비자와 직접 만나는 상호소통 시간을 늘리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고전과 국문장편소설 큐레이션 서비스로 독자의 취향에 맞는 작품을 추천하고 연결하는 방안도 고려해봄 직하다. 영화, 책, 미술, 제품 등 다양한 분야에서 소비자의 취향을 겨냥한 데이터 기반의 큐레이션 서비스가 확대되고 있는 오늘날 고전문학 큐레이션 서비스는 대중과 거리를 좁히는 또 다른 대안이 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국문장편소설의 마이크로 장르 개발과 큐레이션 작업이[49]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교육 성과를 디지털 플랫폼으로 공유하는 것도 대중적 소통의 시작이다. 수업에서 학생들이 기획하고 제작한 고전소설 콘텐츠를 다채널로 전파, 공유함으로써 주변적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방법이다. 대기업 상품이나 유명인보다 일반인의 영상과 사진에 등장하는 상품과 인물을 더 선호하고[50] 광고보다 믿음직한 친구의 이야기가 더 영향력을 발휘하는[51] 것처럼 교육적 차원에서 관련 실험을 지속한다면 이 또한 고전의 대중적 확산에 도움

49) 정혜경, 「고전소설 콘텐츠의 OTT 서비스와 그 미래-구독형 서비스 넷플릭스와 왓챠의 영화를 중심으로」, 『열상고전연구』 75, 열상고전연구회, 2021, 81~83쪽.

50) 박정례, 이연준, 「Z세대를 위한 트랜스 브랜딩 전략에 관한 연구」, 『브랜드디자인학연구』 59, 한국브랜드디자인학회, 2021, 199쪽.

51) 조나 버거 지음, 정윤미 옮김, 『컨데이저스』, 문학동네, 2013, 301~306쪽.

www.kci.go.kr

이 될 것이다. 보다 근본적으로는 고전소설을 전문적으로 번역하는 전문 번역가와[52] 고전소설을 '실물과 디지털 형태의 작품'으로 생산할 수 있는 창작자(크리에이터) 육성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한다. 엔터테인먼트 산업이 날로 성장하고 디지털 자산의 가치가 새롭게 주목받고[53] 있는 시대에 이러한 교육 방안은 내러티브 자본으로서 고전소설의 효용 가치를 높이는 데도 기여한다.

아울러 고전을 새롭게 읽고 쓸 다양한 인력 확보가 시급하다. 읽기와 쓰기는 '소비자의 역할을 직접 창조하는, 협력하는 창조'[54]가 가능한 형태로 전환하는 것이 좋다. 지난날 원전에 충실한 현대역이 연구자 중심으로 이뤄졌다면[55] 앞으로는 연구자와 전문 작가의 협업을 통한 번역이나 전문 작가와 일반 대중이 참여한 새로운 형태의 다시 쓰기로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 김탁환의 『대소설의 시대』를[56] 성공 사례로 꼽을 수 있다. 고전문학 전공자이자 소설가의 손에서 탄생한 이 작품은 2021년 9.4점(YES24)이라는 비교적 높은 평점으로 독자의 사랑을 받고 있다.[57] 흥미로운 사실은 작품명조차 생소한 스물두 편의 국문장편소설을[58] 현대인의 감각에 맞게

52) 임치균(2011), 앞의 논문, 29쪽.

53) 전자정보통신엔터데인먼트 산업 전문팀, 『BUSINESS FOCUS-CES 2022를 통해 본 미래 ICT 산업』, 삼정 KPMG 경제연구원, 2022.1, 26쪽.

54) '협력하는 창조는 트랜스 브랜딩 전략 요소로 소비자는 자신의 의견을 반영하거나 그 이상으로 어떠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에서 자존감을 형성하며 이를 통해 더 큰 브랜드 충성도를 구축한다는 것이다.' 박정례, 이연준(2021), 앞의 논문, 197쪽.

55) 김문희(2013), 앞의 논문, 172쪽.

56) 김탁환, 『대소설의 시대』 1-2, 민음사, 2019.

57) http://www.yes24.com/Product/Goods/73094036(검색일자: 2021.12.29)

58) 〈엄씨효문청행록〉, 〈곽장양문록〉, 〈유씨삼대록〉, 〈쌍천기봉〉, 〈소현성록〉, 〈현씨양웅쌍린기〉, 〈보은기우록〉, 〈천수석〉, 〈완월회맹연〉, 〈유효공선행록〉, 〈벽허담관제언록〉, 〈임씨삼대록〉, 〈조씨삼대록〉, 〈현몽쌍룡기〉, 〈창란호연록〉, 〈명주기봉〉, 〈소씨삼대록〉, 〈이씨세대록〉, 〈옥원재합기연〉, 〈옥한기봉〉, 〈임화정연〉, 〈명주보월빙〉

www.kci.go.kr

재배치함으로써 독자에게 재미와 충격을 안겨준 점이다.

> 당대에 유행한 대소설을 꼼꼼히 읽고 소설에 반영한 작가의 노력도 대단하다. 작가가 지어낸 줄 알았는데 전부 다 실존하는 작품임을 알았을 때의 충격이란![59]

> 18세기의 소설이 어떻게 쓰여지고 읽혀졌는지, 종로 거리가 지금과 오버랩되면서 읽는 내내 흥미진진했다.[60]

> 이 소설을 읽으면서 가장 감탄을 하는 부분은 이야기가 진행되어 가면서 당대의 인기를 끌었던 수많은 대소설이 등장한다는 것이다.[61]

> 재미난 것은 이런 대소설을 주로 쓰고 읽은 이들이 여성이라는 점이다. …중략… 서민뿐만 아니라 궁의 여인들까지도 즐겨 읽었다고 하니 당시 대소설의 인기를 실감할 수 있을 것 같다. 예나 지금이나 소설이 갖고 있는 매력은 다르지 않은 듯하다.[62]

> 책장을 덮고 아쉬운 마음에 저자가 참고했다는 자료와 연구 목록을 쭉 살펴봤다. 거의 다 모르는 책들이어서 실망감이 젖어 들 무렵 아는 저자와 책들이 몇 권 보였다.[63]

위의 독자평은 국문장편소설을 활용한 다시 쓰기가 조선시대 여성과 고전문학에 대한 이해 지평을 넓히고 새로운 소비맥락을 형성하는 기반으로

59) http://blog.yes24.com/document/11981456(검색일자: 2021.12.30.)
60) http://blog.yes24.com/document/11459181(검색일자: 2021.12.30.)
61) http://blog.yes24.com/document/11364959(검색일자: 2021.12.30.)
62) http://blog.yes24.com/document/11343306(검색일자: 2021.12.30.)
63) http://blog.yes24.com/document/11347544(검색일자: 2021.12.30.)

www.kci.go.kr

작용했음을 보여준다. 물론 잘 모르는 장편소설이 가독성을 떨어트린다는 불편한 시선도 있다. 하지만 예나 지금의 소설이 다르지 않다는 독자의 리뷰는 국문장편소설의 또 다른 향유 가능성을 말해준다. 이렇게 17세기에 시작된 장편의 빛이 마침내 21세기 독자(작가)에게 도달해 또 다른 세계로 인도해 준다.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할 부분은 낯선 국문장편소설을 소재로 한 『대소설의 시대』가 사랑받을 수 있었던 배경이다. 이 소설 뒤에는 백탑파 시리즈를 출간한 역량 있는 작가의 작품을 기다리는 팬덤이 자리한다. 이는 열혈 독자를 확보한 현직 작가를 대상으로 한 고전소설 다시 쓰기 사업이 고전소설 브랜딩의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1962년 최인욱 작가가 〈임화정연〉을 현대적 수법으로 풀어썼듯이 브랜드 파워를 가진 작가와 협업을 다시 고려해볼 만하다. 작가의 브랜드 가치가 고전과 국문장편소설의 브랜드 가치를 끌어올릴 수 있기 때문이다.

학회의 역할과 의미 또한 새로운 시대에 맞게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 학회 차원에서는 고전소설을 대중의 곁으로 돌려보내기 위한 합의와 방향을 설정하고 고전과 국문장편소설 브랜딩에 관심을 두어야 한다. 브랜딩은 현대 독자가 고전을 통한 긍정적 경험과 호의적 이미지를 갖게 만드는 데서 출발한다.[64] 따라서 학회 연대를 통해 다채로운 참여형 프로그램을 공동 주최하여 고전소설 향유의 새로운 패러다임과 환경을 조성해 나가야 한다. 고전소설 다시 읽기/쓰기 공모와 경연을 포함한 다양한 참여형 프로그램은 일반 독자를 능동적 향유자로 바꾸는 계기가 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인문학에 대한 지원과 협조가 절실하다.

끝으로, 방대한 서사 중에 무엇을 어떻게 독자에게 보여줄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활성화되어야 한다. 작품의 시대성과 대중성을 읽는 것은 물론

64) 안광호, 한상만, 전성률, 『전략적 브랜드관리』, 학현사, 2013, 23쪽.

www.kci.go.kr

이거니와 가부장제의 폭력성 등 국문장편소설에 내재한 사회문화, 그리고 이념적 간극을 어떻게 이야기할 것인가이다. 이 일은 앞서 언급한 국문장편소설의 큐레이션과도 맞닿아 있다. 국문장편소설을 시대에 맞게 재구성하면 작품의 매력을 현대 독자에게 좀 더 효율적으로 전달할 수 있지 않을까 한다. 지금도 국문장편소설의 대중적 부흥을 열망한 연구가 여러모로 전개되고 있는데, 이상의 논의가 더해져 역동적인 움직임을 만들 수 있길 기대해 본다.

4. 맺음말

이 글에서는 국문장편소설의 현대적 출판 양상을 검토하고 소비문화와 유통사적 맥락에서 현대적 출판 방향과 대중화 전략을 모색하였다. 이를 통해 고전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대중적 확산을 견인하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이상의 논의를 정리하는 것으로 결론을 대신에 하고자 한다.

2장에서는 지금까지 영인, 교주, 현대역된 국문장편소설의 서지 데이터를 한데 모아 정리하고 이를 토대로 현대적 출판 형태와 흐름을 전반적으로 조망하였다. 48종의 국문장편소설이 영인(79편), 교주(25편), 현대역(31편) 되고 그 총합은 135편에 이른다. 현대적 출판은 1962년 〈임화정연〉을 현대적 수법으로 옮기는 것을 시작하여 1970년대 영인이 중심이 된다. 1980년대 원전의 수집과 자료 정리가 활기를 띠면서 국문장편소설의 출판량도 최고치를 기록하지만, 1990년대 출판량은 전 시기 대비 소폭 감소한다. 그러나 2000년대 들어 대중화 방향으로 나간다. 2010년 가장 많은 현대역본(7종)이 출간된 후 매년 1∽2편이 현대역된다. 그럼에도 아직 60%에 가까운 작품이 현대어로 옮겨지지 못했으며, 〈임화정연〉과 〈하진양문

www.kci.go.kr

록〉 처럼 번역의 시대성을 고려한 새로운 형태의 번역이 필요한 작품도 상당했다. 절대 쉽지 않은 국문장편소설의 현대적 출판에 관심을 두고 새로운 출판 전략을 모색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3장에서는 현대역 방안을 포함하여 국문장편소설의 미감을 현대 독자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출판 방향과 대중화 전략을 살폈다.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 좋은 현대역의 기초가 되는 서지학적 접근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도앵행〉의 선본 연구를 비롯해 〈설씨이대록〉과 〈제호연록〉 등의 텍스트 재구 작업이 그것이다. 이어 흥행력이 검증된 작품을 유통사적 맥락에서 발굴하여 우선 번역할 대상을 선정함으로써 텍스트 수용 가능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이본 총량과 매체 수용력을 근거로 우선 번역할 대상을 추출하면 현대역본이 부재한 〈화씨충효록〉, 〈유효공선행록〉, 〈명주기봉〉 등과 새로운 현대역본이 필요한 〈현씨양웅쌍린기〉, 〈하진양문록〉, 〈임화정연〉 등이 대상이 된다. 연작 지향성이 강한 장르적 특성을 살려 시리즈물로 출판할 경우 모든 연작이 인기를 끈 〈현씨양웅쌍린기〉 연작과 〈유효공선행록〉 연작을 우선순위에 둘 수 있다.

다음으로 콘텐츠 이용 형태와 장르적 속성을 고려한 출판 형태와 방향을 탐색하였다. 축약본과 오디오북으로 다변화하여 접근성과 독서 효율성을 높이고 구독형 플랫폼으로 이용 경로를 확장하는 것이다. 독자층의 구분 또한 세대와 취향을 고려하고 노년층을 위한 여가도서 제작을 추진해볼 만하다. 끝으로, 대중화는 매체와 플랫폼 전환만으로는 불충분하기에 대중적 확산과 고전 브랜딩 전략을 추가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에 대한 방안으로 교육 성과 공유, 큐레이션 서비스, 전문 번역가와 창작자(크리에이터) 육성, 고전 읽기와 쓰기의 다양한 인력 확보, 그리고 학회의 역할 변화 등이 있다.

이 연구는 국문장편소설의 출판 생태계 전반을 이해하고 소비문화와 유통사적 맥락에서 현대적 출판과 대중화 방향을 재구성한 의미가 있다. 그

www.kci.go.kr

러나 국문장편소설에 관한 현대 독자의 수용 인식과 태도가 정밀히 분석될 때 대중화 방안이 더욱 힘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이는 후속 연구로 보완해 나가고자 한다.

www.kci.go.kr

참고문헌

권순긍, 옥종석, 「고전소설과 콘텐츠, 그 제작 양상과 개발의 전망-영화콘텐츠를 중심으로」, 『한국고전연구』 43, 한국고전연구학회, 2018, 5~46쪽.

권혁래, 「고전소설의 다시쓰기 출판물 연구 시론」, 『고소설연구』 30, 고소설학회, 2010, 10~30쪽.

권혁래, 「고전문학전집의 수요와 방향-'대중성'과 '교양'을 어떻게 충족시킬 것인가?」, 『국제어문』 70, 국제어문학회, 2016, 81~104쪽.

김문희, 「장편가문소설의 현대역의 문제와 고전의 재구성」, 『우리말글』 57, 우리말글학회, 2013, 161~190쪽.

김지연, 「〈임화정연〉의 현대적 출판과 개작의 특징」, 『고소설연구』 33, 한국고소설학회, 2012, 283~331쪽.

김탁환, 『대소설의 시대』 1-2, 민음사, 2019, 1~320쪽; 1~324쪽.

김풍기, 「고전의 번역과 대중화, 그 현실과 전망」, 『우리말글』 56, 우리말글학회, 2012, 43~62쪽.

김풍기, 「시간 극복으로서의 번역과 공동체 문화의 계승-김광순 소장 필사본 고소설 100선 출간의 의미」, 『국학연구론총』 27, 택민국학연구원 2021, 33~53쪽.

문화체육관광부 콘텐츠정책국, 『2019년 기준 콘텐츠산업조사: 콘텐츠산업 통계조사』, 문화체육관광부, 2020, 1~105쪽.

박상민, 「박경리 토지의 서술 특징에 따른 대중적 향유 전략」, 『대중서사연구』 24(3), 대중서사학회, 2016, 260~278쪽.

박진임, 「문학 번역과 문화 번역: 한국 문학 작품의 영어 번역에 나타나는 문제점 연구」, 『번역학연구』 5(1), 한국번역학회, 2004, 97~111쪽.

박정례, 이연준, 「Z세대를 위한 트랜스 브랜딩 전략에 관한 연구」, 『브랜드디자인학연구』 59, 한국브랜드디자인학회, 2021, 193~208쪽.

서지학개론 편찬위원회, 『서지학개론』, 한울아카데미, 2015, 1~91쪽.

신해진, 「〈필사본 고소설 100선〉 역주작업의 의의 및 그 후속 역주와 DB 구축을 위한 제언」, 『국학연구론총』 22, 택민국학연구원, 2018, 33~68쪽.

안광호, 한상만, 전성률, 『전략적 브랜드관리』, 학현사, 2013, 1~499쪽.

이기성, 「출판학 연구 동향 및 특성에 관한 논문-한국출판학연구(1982-2006)를 중심으로」, 『한국출판연구』 51, 한국출판학회, 2006, 353~394쪽.

www.kci.go.kr

이민주, 「『도앵행』의 장면전개 연구」, 서울대 석사논문, 2017, 1~28쪽.
임치균, 「번역의 관점으로 본 한글 고전소설 현대어화의 실제-낙선재본 고전소설을 중심으로」, 『돈암어문학』 24, 돈암어문학회, 2011, 7~32쪽.
전자정보통신엔터데인먼트 산업 전문팀, 『BUSINESS FOCUS-CES 2022를 통해 본 미래 ICT 산업』, 삼정 KPMG 경제연구원, 2022.1, 1~26쪽.
정선희, 「국문장편소설 연구의 현황과 나아갈 방향」, 『고소설연구』 50, 한국고소설학회, 2020, 5~58쪽.
정창권, 『조선의 세계명작 완월회맹연』, 월인, 2013, 1~194쪽.
정혜경, 「서지 데이터로 본 국문장편소설-작품의 목록과 존재 양상을 중심으로」, 『고소설연구』 50, 고소설학회, 2020, 59~110쪽.
정혜경, 「국문장편소설의 유통 지형과 서지학적 과제-판본별 서지 데이터를 중심으로」, 『우리어문연구』 70, 우리어문학회, 2021, 117~156쪽.
정혜경, 「고전소설 콘텐츠의 OTT 서비스와 그 미래-구독형 서비스 넷플릭스와 왓챠의 영화를 중심으로」, 『열상고전연구』 75, 열상고전연구회, 2021, 45~90쪽.
지연숙 옮김, 『소현성록』, 문학동네, 2015, 835~845쪽.
최윤희, 「〈도앵행〉의 문헌학적 연구」, 『우리어문연구』 28, 우리어문학회, 2007, 365~399쪽.
한길연, 「대하소설의 자료사적 궤적과 공공화 방안」, 『고소설연구』 42, 고소설학회, 2016, 5~45쪽.
조나 버거 지음, 정윤미 옮김, 『컨데이저스』, 문학동네, 2013, 1~306쪽.
조희웅, 『한국고전소설사큰사전』 1-74, 지식을만드는지식, 2017.
이소현, 「미지의 국문장편소설, 5년간 현대 국어로 번역하다」, 『이대학보』, 2010.5.9.
「윌라 오디오북 이용자 청취시간 2.6배 증가… "소설 강세"」, 『매일경제』, 2021.12.09.
「古代小說全集刊行 乙酉文化社서 計劃」, 『동아일보』, 1962.01.23.
교보문고: http://www.kyobobook.co.kr
디지털한글박물관: http://archives.hangeul.go.kr
서지정보유통지원시스템: http://seoji.nl.go.kr
윌라: https://www.welaaa.com
한국학 디지털 아카이브: http://yoksa.aks.ac.kr/main.jsp
YES24: http://www.yes24.com

www.kci.go.kr

ABSTRACT

Modern Publication of Korean Full-Length Classical Novels and Strategies for Popularization

Jung, Hye-kyung*

This study aims to understand aspects of the modern publication of Korean full-length classical novels and the methods used in their popularization

To effectively popularize the classics, it is necessary to understand the overall publishing ecosystem through their data on publications in the present age and to construct a new modern publication of Korean full-length classical novels in the context of the history of distribution. Thus, this study examined the form and trend of modern publications, including the data on Korean full-length classical novels that have been photo-printed, proofread/annotated, and translated into modern Korean. The modern publication of Korean full-length classical novels began with Imhwajeongyeon, published by Eulyoo Publishing Co. in 1962, gradually increased with the photo printing of classical novels in the 1970s, and proceeded in earnest in the 2000s after a downturn in the 1990s. Modern translations increased explosively in 2010 (seven kinds), after which only one or two works have been translated each year. However almost 60% have not yet been translated into modern Korean. It is shown that modern translations would be needed according to the readers' patterns of use the translated works.

To attain a mass readership of full-length novels among the public beyond the narrow confines of particular groups, it is necessary to identify significant texts to be translated in the context of the history of distribution, set directions for modern publication taking into consideration the publishing ecosystem, follow the appropriate patterns

* Kangnam University

www.kci.go.kr

and prepare strategies for popularization. Thus, this study first translated *Hwassichunghyorok*, *Yuhyogongsseonhaengrok*, and Myeongjugibong which have long had wide popularity, holding readers' attention for a long time- consider literary value and the state of their bibliographical research, and proposed changes in the methods of publication and distribution considering the medium and platform. This study discusses the strategy of securing an active readership by improving the accessibility of works and by including a more diverse participants in translation with abridged versions, audiobooks, and rewriting versions. For popularization, since the conversion of media and platform is insufficient, it would be necessary to make efforts to spread an awareness of Korean classical novels in the academic community, spread an enjoyment of these works in the literary environment by branding of Korean classical novels and the curation service.

Key Words Popularization of the classics, Korean classical novels, modern translation, abridged version, audiobook, branding, curation service

논 문 투 고 일 : 2022.01.25.
심 사 완 료 일 : 2022.02.09.
게 재 확 정 일 : 2022.02.16.

www.kci.go.kr